

KOCHAM Economic Briefing

Korean Chamber of Commerce
and Industry in USA, Inc

2014년 11월 11일(화)

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- 1) 미달러, 경제회복 지속 전망에 강세
- 2) 10월 중 고용추세지수 123.09, 전년비 7.7% 증가

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- 1) 중국, PPI 상승률 32개월 연속 마이너스
- 2) TPP 협상참가국 정상, 협상 타결 촉진 합의

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- 1) BNY멜론, 실리콘밸리에 연구소

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1) 미달러, 경제회복 지속 전망에 강세

- 지난 10일 FT는 미국 경제 회복이 지속, 당분간 달러화가 지속적인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보도
 - 달러화는 지난 10월 고용지표 실망 등으로 인해 약세를 보인 지 하루 만에 다시 강세로 반등
- 한편, 지난 6일 달러대비 엔화가치는 7년 만에 최저, 유로화는 2년여 만에 최저를 각각 기록한 바 있음
-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미국 경제 호조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달러 강세를 유도하였으며,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도 달러 강세에 영향을 미침

2) 10월 중 고용추세지수 123.09, 전년비 7.7% 증가

- 지난 10일 컨퍼런스보드는 10월 중 미국의 고용추세지수(ETI)가 전년대비 7.7% 증가한 123.09를 기록했다고 발표
 - 이는 9월 중 고용추세지수인 121.91보다 높은 수준으로 미국 고용시장의 추세가 호전됐다는 것을 의미
- 전문가들은 고용 상태가 꾸준히 호전되는 추세로 전월에는 고용의 8가지 요소가 모두 개선됐다고 설명
 - ETI를 구성하는 8개 요소는 취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응답자 수,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, 즉각적인 채용은 불가능하지만 일자리 여유가 있는 기업 수의 비율, 임시직 고용자 수, 총 임시고용자 수 대비 비자발적 임시고용자 수의 비율, 구직난, 산업생산, 실질 생산 및 무역 매출 등임

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1) 중국, PPI 상승률 32개월 연속 마이너스

- 지난 10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의 10월 PPI가 전년 동기 대비 2.2% 낮아졌다고 밝힘
 - 이는 블룸버그 집계 시장 예상치를 0.2%포인트 하회한 수치이며, 일반적으로 PPI 지표가 악화되는 현상은 수출 가격 인하와 글로벌 디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것으로 해석
- 더불어,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과잉 공급과 내수 부진으로 인해 타격을 입고 있다고 분석
 -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3/4분기 GDP는 7.3%증가했으며 예상치인 7.2%를 소폭 상회했지만, 1분기(7.4%), 2분기(7.5%)로 이어지던 성장흐름이 멈춤
- 또한, 국제통화기금(IMF)은 중국의 성장둔화가 명백해지고 있고, 내년 GDP가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7.1%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측

2) TPP 협상참가국 정상, 협상 타결 촉진 합의

- 지난 10일 AFP통신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TPP) 협상참가국 정상들이 TPP 협상을 최대한 빨리 타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
 - 정상들은 협상 타결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최대한 신속히 TPP 협상의 실제적이고 실속있는 이득을 거둘 것을 지시했다고 밝힘

- 그러나, 전문가들은 이번 APEC 회의 기간에 TPP 협상에서 주목할만한 큰 성과가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
 - TPP 협상 참가국들은 각료회의에서 그동안의 TPP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는 인식에는 일치했으나 TPP 타결시기의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
- 한편, TPP 협상 참가국들은 지적 재산권 보호, 국유기업 개혁 문제 등에 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미·일 양국이 농산물 관세 문제를 놓고 의견을 대립중인 것으로 알려짐

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1) BNY멜론, 실리콘밸리에 연구소 설립

- 지난 9일 FT는 미국 은행인 뱅크오브뉴욕(BNY)멜론이 첨단 IT(정보기술) 산업 메카인 실리콘밸리에 기술연구소를 설립했다고 보도
 - 이는 금융업체들이 실리콘밸리 IT기업들의 금융서비스 확대 움직임에 위협을 느끼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지적
- FT는 기존대형 은행들의 실리콘밸리 진출과는 달리 이번 BNY멜론의 움직임은 다소 성격이 다르다고 보도
 - 전문가들은 최근 은행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저금리 환경과 규제 강화 여파로 비용 절감 및 수익 증대 압력에 직면해있다고 분석
- 한편, BNY멜론 외에도 캐피털원파이낸셜, 웰스파고 같은 금융업체들이 현재 실리콘밸리에서 자체 연구소를 운영하거나 신생기업을 통한 기술 개발 및 투자에 관심을 집중